

光州日邦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96호 1판 대표전화(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8월 24일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영산강 상류 2급수로 끌어올린다

광주시, 맑은물 공급 용역 보고회 수질개선으로 생명력 넘치는 강 사계절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생태습지조성 '물순환 도시'로 수변 공간 개발도 함께 추진

영산강을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되살 리기 위한 광주시의 종합 구상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2030년까지 영산강 수질을 현재 3~4등급에서 2등급(좋음)으로 끌어올리고, 가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쓸 수 있는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14일 광주시청 세미나1실에서 '영상 강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팀은 광주시에 하천 수질개선, 생태습지 조성, 하수처리 고도화, 물 재이용 확대 등을 종합한 '물순환 도시'모델을 제시했다. 사계절 내내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고 2등급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중간 용역단계지만 최종 안으로 확정, 추진될 지 주목된다.

영산강 상류(담양호~덕흥보)와 광주천 일대에서 수량을 늘리고 수질을 끌어올려 시민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변 활력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광주시가 구상하는 영산강 물 개선 구간은월산보 위의 첨단상류부터 덕흥보까지 총 13㎞구간이다.

영산강은 광주의 생활·산업·문화가 만나는 공간 으로 유량이 끊기면 수질이 혼탁해지고 덩달아 수 변 이용도 제약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갈수기에는 악취·정체, 우기에는 돌발 범람을 걱정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수자원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물을 얼마나, 얼마나 깨끗 하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려보낼지부터 재설계



광주시는 14일 영산강 월산보 인근 첨단상류부터 덕흥보까지 총 13km구간에서 영산강 물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대상 구간인 서구 덕흥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혼탁한 영산강에 새물을 추가 공급함으로 써 희석하는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방 향을 잡았다.

시는 강변 땅속에서 자연 정화된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하상여과수 방식을 고려했지만, 단일 수원의존이 아닌 혼합 조달과 유연 운전 방식을 선택했다.

자연정화된 하상여과수, 하천에서 직접 끌어오는 물,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를 재이용한 물 등을 상황에 따라 섞어 쓴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하천수 비중을 높이고, 가뭄기에는 재이용수·방류수를 보강한다. 시설은 기존 부지·관로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 부담을 줄이고, 상·하류를 잇는 관로를 통해 탄력 적으로 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Y프로젝트'와 연계 해 영산강 100리길 조성, 서창 감성조망대 등 수 변공간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부 물순환촉진사업 등 국비 공모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영산 강을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깨끗한 강 으로 만들겠다"며 "다양한 방법을 종합해 지속가 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하상여과수 방식의 타당성 평가가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드는 인공 적인 정화시설에 앞서 자연 정화 공법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광완 광주시행정부시장은 "용역에서 방안이 제시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 라, 제안된 아이디어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전문가 적 식견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해 지속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정원을 만들었다 고 밝혔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전남, 벼 재배면적의 9.3% 피해

정부가 벼 깨씨무늬병〈광주일보 10월 2일 10 면〉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병 피해에 이어 쪽파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노균 병, 잿빛곰팡이병, 잎끝마름병 등 병해가 확산하 는 데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이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 고 피해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한 뒤 농업재해대 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는 지난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에서 3만 6000 ha(헥타르・1 ha는 1만㎡)에 걸쳐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벼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 벼 재배면적의 9.3%인 1 만 3000ha에서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피해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크다.

전남도는 지난달 25일 전국 최초로 농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하는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벼 깨 씨무늬병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도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바 있다.

벼 깨씨무늬병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쪽파 농가 피해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보성 지역의 경우 150 개 농가 (재배면적 120ha) 에서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잎끝마름병 등 병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6면

꼰대들의 대학원 노예가 된 학생들

KIA 포수 신명승, 내년 시즌 1군 꿈꾼다 ▶18면

조인호 광주전남 미술사 - 현대조각의 형성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 대통령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적극 대응"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구축 연루자들 신속하게 송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 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에 대한 적극 대응 을 지시했다. 〈관련기시3·7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 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 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면 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 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

은데, 우리나라도 $5\sim6$ 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

또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 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 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 분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따뜻한 돌봄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돌봐드릴게요.



요양보호사는 이런 업무를 해요!

신체 활동지원

- 식사하기, 체위변경 및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 등
- 개인위생 활동 및 몸단장,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 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인지자극 활동 등

일삼생활 및 정서 지원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 식사준비 등
- 말벗, 의사소통 도움, 외출 동행 등
- **※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보호사**는 **상호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과 관련 없는 업무(김장, 창고정리, 반려견 돌보기 등) 요구
- 가족을 위한 업무(가족의 식사, 빨래 등)를 요구하고, 거부 시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
-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 농담 및 상하의 탈의 등 부적절한 행동
- 반말 · 욕설 등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 수급자(가족)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해고) 요구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모두의 고마운 돌봄 전문가입니다."